
第9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7年3月25日(火) 午前10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第2期地下鐵建設財源調達問題와關聯한姜德基第1副市長出席要求의件
 2.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1. 第2期地下鐵建設財源調達問題와關聯한姜德基第1副市長出席要求의件 ... 1面
 2.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 2面
-

(10時 49分 開議)

○委員長 金永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交通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第2期地下鐵建設財源調達問題와關聯한姜德基第1副市長出席要求의件

○委員長 金永春; 交通放送本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하여 姜德基 第1副市長을 우리 交通委員會에 97년 3월 28일 오후3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姜德基 副市長의 출석문제에 대해서 委員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姜德基 副市長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킨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交通放送本部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특히 交通放送本部에는 금년 6월에 있을 청사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議會에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委員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신있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委員長 金永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交通放送本部 소관 당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交通放送本部長 나오셔서 당면현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

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金永春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입니다.

제93회 市議會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交通放送本部の 주요 업무와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이면 그 동안 여러 委員님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저희 교통방송은 남산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열린방송으로 신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의사 결정에 가교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방송국으로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交通放送本部는 우선 낙후된 방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96년 11월부터 시작된 남산 신청사에 대한 건축, 설계, 개보수 공사를 공정에 차질 없이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이며 이사와 관련된 제반사업의 준비와 방송장비의 도입 및 이전설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오는 6월초부터는 남산 신청사에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97년 3월 10일 97년 정기 춘하계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교통정책진단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남산시대를 대비하여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교통정보체계의 첨단화를 위하여 교통정보자동응답 시스템 즉, ARS사업은 4월초부터 시스템 설치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으며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생산과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방송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방송, 열린 방송, 시민으로부터 사

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전 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산기슭에 새 등지를 조성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交通放送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의 따뜻한 배려와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당면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交通放送 현안업무 추진중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永春 委員長, 朴謙洙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朴謙洙; 交通放送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放送本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交通放送本部長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전부 질의를 하시겠는데 우선 金亨吉 委員님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金亨吉 委員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오전하고 오후하고 趙淳 市長이 지금 서울시정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방송출연을 하고 있고, 또 3월부터 副市長이 지금 현재 매월 셋째주 금요일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交

交通放送本部에서 과연 그런 시청률이나 또 효과나 반응을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또 조사를 안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야 할 의지는 어떤 것인지를 本部長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예산관계 사항인데 지금 交通放送本部가 160억원으로 97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협찬광고가 66억 4,00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경기문제를 걱정해서 交通放送本部에서 적극적으로 협찬광고 수입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에 경제적인 혼란기 또 불경기 또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66억 4,000만원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입이 될 것인지, 만약에 안 됐을 때 交通放送本部로서의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本部長으로서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다음에 세번째로는 설비이전에서 디지털 설비에 지난번에 3억 8,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자동송출장비가 1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영상화면에 1,900만원, 중계송신소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매나 계약방법이 지금 현재 SOROK에 발주를 한 것인지, 또는 자체적으로 交通放送本部에서 계약을 한 것인지, 또 계약을 했으면 어느 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謙洙; 다음은 李智文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智文 委員; 李智文 委員입니다.

작년도 交通放送에서 11건 本部長 결재해서 계약한 내역을 보니까 그중 두 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두 건 내용이 교통방송 청취행태조사하고 교통정보자동응답시스템 설치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첫번째 청취율 조사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사해야 될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수의 계약을 준 회사대표가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리서치. 그래서 그분이 부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예정가격 1,960만원인데 1,950만원, 99.5%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작년하고 그 전 해 같은 경우 월드리서치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이 언제부터 우리 시청자위원회에 위원 내지 부위원장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는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공개녹화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방송에서? 그런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장애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하니까 4월에 교통장애인들 중심으로 공개녹화방송을 한 번 하는 것도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 일으키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朴謙洙 幹事, 金永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永春; 이어서 池昌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池昌洙 委員; 池昌洙 委員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앞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방송장비 구입, 방송시설 및 장비설치 항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외자장비, 내자장비, 방송장비 설치, 철탑 및 안테나 설치, 무선망안테나 설치, 멀티스크린 설치, 그 다음에 교통정보전산처리장치 구축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 구입시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이런 장비구입을 해 왔는지, 수의계약인지, 또 업체에서 사전에 장비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오피같은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인지 등등 아마 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 장비구입에 따른 일체의 건에 대해서 발주서부터 계약한 사항까지 그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은 白聖德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白聖德 委員; 白聖德 委員입니다.

교통방송본부 간부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 간부가 3명이 있고, 本部長 포함해서 모두 간부가 14명인데 입사과정에서 어떻게 누가 추천했었는지, 그리고 인사기록카드 이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本部長은 오늘 답변을 구두로 할 것은 상세하게 공채로 들어왔는지 예를 들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이것을 자세히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洪性龍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性龍 委員; 洪性龍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것이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확대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인원수면에서 그냥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프로그램 개편이라고 해서 여기 전부 이름만 바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진행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지 특이하게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것이 첨가되어서 청취자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청취율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本部長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점차적으로 자꾸 청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운전자의 애청 채널을 보면 상당히 너무 다른 방송과 비교할 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비운전자의 애청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이 크려고 하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은 李允中 委員 질의하세요.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보도부분의 강화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보도부분 강화에 대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보도부분 강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기자채용계획과 기자채용에 대한 장비현실화, 지금 교통방송이 옹기면서 교통방송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확대되면서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委員들에게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서울시장과 그 외 서울시 인사가 매주 내지는 매월 나와서 하는데 그 외에 우리 市 인사에 출연했던 인물들이 어느 분이 출연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즉석에서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ARS 문제로 해서 지난번 자료에 보면 지난번 예산때 19억 8,000만원의 설계금액이 18억 9,000여 만원에 설계되었는데 낙찰가가 11억 4,000만원에 이렇게 아주 저가에 낙찰되었는데 이것도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달물자계약서를 보면 삼보정보통신이 발주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李始英 委員 질의하세요.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ARS 부분에는 同僚委員인 李允中 委員이나 기타 委員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95년도에 豫決委에서

ARS 문제를 가지고 열거할 때 交通放送本部長의 의지와 交通放送本部의 모든 직원들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은 하지 않고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한 交通放送本部長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이어서 同僚委員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여부 그리고 향후 이것은 과연 이런 저가입찰로 했을 때 交通放送本部長은 효율적으로 정말 서울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ARS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묻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제출자료 34쪽에 보게 되면 정보수립체계 구축에 있어서 전자감응식 신신호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차후에 528개소를 늘릴 것이며, 광검지기 신설을 20개로 해서 86개소로 344대의 이것을 하겠다는 그 위치, 목 지점 어느 곳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CCTV를 자동반복시스템으로 해서 CCTV화면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정보계량화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량화를 할 것인지, 이어서 고속도로 CCTV화면 연계상황종합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KBS와 MBC도 이와 유사한 교통프로그램을 확대하고, 本委員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交通放送本部에서는 교통통신원 3,000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KBS는 7,000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MBC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交通放送本部長께서는 고속도로의 CCTV 화면 연계상황을 종합분석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미 KBS는 道路公社하고 CCTV화면을 제공받겠다는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本部長은 아시는지, 그리고 이

미 통신원을 7,000명을 활용을 하고, 56대의 CCTV가 설치되고 고속도로상황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은 ARS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취권에 있는 천안 이하 대전까지 이것을 감지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즉 말해서 청취권, 청취율 가시권에 있는 이들에게 고속도로상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만약에 이에 대한 문제는 本部長의 얘기를 듣고 本委員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는 전자감응식 신신호시스템 소요예산이 20억인데 정보수집시 광검지기, 루프 등을 설치하는데 14억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입찰을 부쳤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공개경쟁입찰회사는 어느 곳이 참여를 했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정보저장 분석 가공시설 및 코드화에 2억 이것도 소요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자응답전화 통신망 구축 128개 회선도 4억인데 이것은 되어 있는지, 향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분석 가공에 있어서 세번째로 보면 음성변환 및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하겠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本部長한테 직답을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앉아서 이따가 답을 할 때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앉아서 들으세요, 서 있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鄭炳仁 委員 질의하십시오.

○鄭炳仁 委員; 鄭炳仁 委員입니다.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청취하다 보면 막 왕왕 울리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원인과 조사를 해 봤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똑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하울링, 울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조사를 해 보았는지.

이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감청부분은 늘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鄭炳仁 委員; 즉답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 간단한 것이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이 주파수와 건물이 그러니까 신호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역에 따라서 약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경우에는 곤지암 경우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쪽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포천으로 가면 산 때문에 약간 지장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MBC 방송국 같은 경우는 잘 들리는데 청계고가 들어가면 그것이 막힙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전파가 주로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구역이 곳에 따라서 생깁니다. 이것은 감청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구역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특히 곤지암의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 委員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3 억원으로 책정이 돼서 중계소 4군데를 새로 설치해서 감청불량지역을 전부 서울시계 지역에서는 없애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국의 음성의 맑기라든가 색의 감도같은 것은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서울시계내에서는 제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방송이라든지 평화방송국에서 저희 기술쪽에 와서 어떻게 해서 그쪽은 그렇게 맑게 나오느냐 늘 토론을 해가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중계소 설치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왕왕 울리는 지역은 많지를 않습니다.

○鄭炳仁 委員; 그 중계소 언제 끝나죠, 설치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8월이나 9월 정도로 끝날 것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중계소 설치장소가 대부분 이동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하고 그 동안 해서 대부분 설치장소를 내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각종 방송장비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 먼저 설비해가면서 기술쪽에도 인력이 상당히 손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송이전하면서 청취율 해소지역 중계소는 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朴謙洙 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謙洙 委員; 다른 委員님들 질문하시는데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本部長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으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鄭炳仁 委員님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내에서도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듣다보면 목소리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목소리가 짹 퍼져서 그것은 전파방해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국에서 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갑자기 음성이 짹퍼져서 웅웅 울리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기술적인 문제가 혹시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방금 중계소

나 난청지역하고는 상관없이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장비가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송장비를 구입한 것이 전부 방송국이 개설될 때 7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디지털화시키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자 12종과 내자 5종 해서 오디오믹서 전부를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朴委員님이나鄭委員님이 걱정하신 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잡음도 저희가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청사로 이전해 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신청사 갈 때 방송장비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신청사 가면서 장비의 1/3 정도가 디지털화됩니다. 그러면 특히 오디오믹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래도 지금 다른 방송국보다 방송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난청이나 혼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해 주신 것들은 그렇게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감청보고서 나오면 언제쯤 나오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감청보고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최근에 했던 것.....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최근에 했던 것 사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謙洙 委員; 그것을 한번 보내 주십시오.
- 李允中 委員;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를 아까 委員長이 분명히 일문일답식으로 안하고 일괄질문하고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운행하지 마십시오.
- 委員長 金永春; 네, 알겠습니다. 방금 鄭炳仁 委員께서 간단하게 묻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 다음 李智文 委員 질의해 주세요.
- 李智文 委員; 李智文 委員입니다.
- 제가 아까 했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는데, 올해도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청취율 조사를 월드리서치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94년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 청취율 조사, 계약방법, 계약금액, 그리고 계약회사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永春; 다음 질의하실 분.
- 李始英 委員;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永春; 李始英 委員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 趙淳 市長님께서 특별히 서울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21세기 서울의 비전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데 1월 27일 처음 출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출연하신 테이프가 되어 있죠?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다 되어 있습니다.
- 李始英 委員;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趙淳 市長께서 월 1회입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월 1회 첫번째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 李始英 委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정해져 있습니다.
- 李始英 委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永春; 梁敬淑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 梁敬淑 委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교통프로그램을 강화한
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시대라는 제하에
거의 2시간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서울시
議員들이라든지 특히 교통위원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토
론하거나 상담할 그러한 대안도 제시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
신지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방송
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의
어떤, 일반청취자들의 비판인데 수다를 너무 떠다, 교통정보
는 안 주고. 이런 평가를 제가 전문가들 몇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통방송 이전하는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왜 交通放
送本부가 이전을 하는데 建設安全管理本部에 계약하고 감독
을 다 위임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방송청사는 다른
청사와 달리 기술적으로 특수한 청사고 또 방송국을 이전하
는 것인데 건물구조와 체계, 또 설계, 이런 부분에서 특수성
이 있을텐데 왜 이것을 建設安全本部에 맡겼는지? 특히 그리
고 공사규모도 건축이 26억원이고, 전기가 3억 6,000만원,
통신이 1억원인데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나중에 보니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계약서에 건축은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사유가 있기는 한데 전기나 통신, 건축에 있어서 계약이 처음 계약하고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계약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설계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용역은 어디에 발주하고 누가 설계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용역방식이나 입찰방식, 그리고 입찰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청사이전으로 해서 새로 구입하거나 폐기하는 방송시설이나 장비가 있을텐데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방송기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방송장비 이설 및 이전청사용 방송시스템 설치를 삼보음향에다 낙찰을 시켰어요. 그런데 낙찰예정가보다 98.9%, 거의 낙찰예정가에 가까운 액수로 해서 1억 4,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삼보음향이 ARS 낙찰받은 삼보정보통신과 계열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에 남아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RS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ARS 낙찰을 調達廳에서 했기 때문에 응찰업체라든지 응찰가라든지 이런 것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서면답변했는데 다른 事業所나 本部에서는 調達廳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주체가 調達廳일지라도 자료는 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本部가 자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調達廳 업무상 각 사의 응찰액이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힌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本部도 地下鐵建設本部에서 수천억원씩 구입하는 그러한 응찰액이나 낙찰업체도 다 우리가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放送本部의 이러한 입찰과정만 밝힐 수 없다는 것인지 그 해명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本部에서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찰과정을 처음부터 낙찰결정 때까지 일지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응찰업체가 지금 5개 회사인데 기아정보시스템, LG산업정보통신, 삼보정보통신, 현대전자산업, 현대정보기술, 이렇게 5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응찰가를 밝힐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응찰업체 대표나 또 응찰업체의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응찰업체의 업체 실적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RS계약을 삼보정보통신하고 했을텐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입찰할 때 어떠한 내용의 기기가 필요하더라는 입찰요구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本部에서 요구하는. 그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시면서 낙찰된 계약내용의 입찰요구 내역서하고 본위원이 대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요구 내역서 사본하고 낙찰돼서 시설을 할 계획서, 기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입찰과정이 유찰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 두 번 하는데 규격하고 가격을 분리입찰을 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다른 부분은 전혀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규격하

고 가격을 분리입찰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차원에서 규격하고 가격을 분리해서 입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ARS기기 도입을 하면서만 2단계로 경쟁 입찰하면서 규격하고 가격을 분리해서 입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부분을 李智文 委員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왜 이 회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다른 부분은 몇 백만원짜리도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0억에 가까운 청취행태 조사용역하고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공사의 감리용역입니다. 이것은 ARS부분이 상당히 문제도 제기되지만 감리를 제대로 할 회사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주어야지 차질없이 기계가 도입되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설비업체보다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감리업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그 예정가와 낙찰가액의 차액이 22만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낙찰예정가가 거의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방송 청취행태조사도 월드리서치에 주었는데 여기는 거의 100%에 가까운 99.5%, 거의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수의계약업체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며,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일단 한 업체가 응찰해서 응찰에서 낙찰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자료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구두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 金喜甲 委員 질의하세요.

○金喜甲 委員; 金喜甲 委員입니다.

지금 방송프로그램이 있는데 방송프로그램 진행중에 지적사항들이 혹시 제기된 것이 있다면 1월 이후에 현재까지 방송 진행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령 예를 들면 저질 방송의 어떤 멘트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심의된 내용이 있으면 오후 2시 전까지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趙上男 委員님.

○趙上男 委員; 趙上男 委員입니다.

너무 격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本部長님은 화를 내지 마시고 本委員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평을 하자면 별로 그렇게 좋은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방송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징도 있고 특성도 있지만 서울시 교통전반에 대한 각양각색의 정보를 충분히 서울시민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이라고 하면 교통질서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화하는 측면에서 방송을 아끼지 말아주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량이 더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통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부에 현재 인원이 9명뿐이 없는데 간부가 3명이고 기자가 6명입니다.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을 예를 들면 거기는 보도국이라고 명칭이 되어있고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방송이 21명. 그러면 교통방송이 현재 이 두 방

송보다도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하 기자분을 6명은 더 증원해서 내용이 있고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本部長님한테 강력하게 기자 6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따 정확하게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朴謙洙 委員 질의하세요.

○朴謙洙 委員; 간단히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입니다.

지난번 本部長께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만 교통방송의 뉴스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 편중뉴스가 너무 많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市 교통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뉴스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 물론 기획기사는 많습시다. 기획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 자체가 이를테면 市長 입을 빌려서 하는 그런 정도로 나가는 것이고, 실제 市議會에서 다루어지는 교통 관련뉴스는 나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한 교통방송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편성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시회가 열리면 지금 교통방송에서 임시회에 대한 보도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서울시議會 제 몇 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常任委員會를 비롯해서 시정질문과 常任委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방송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交通管理室, 地下鐵建設本部, 또 地下鐵公社, 都市鐵道公社를 이렇게 하고 있는 交通委員會에서 이룰테면 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가 한 마디도 안 나가요. 우리 市議員을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평상시 교통 관련부서에서 흘러나오는 이룰테면 브리핑하는 기사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기사도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 뉴스보다도 오히려 부족해요. 정식 보고를 하는 이룰테면 地下鐵公社에서 이번 지하철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룰테면 지하철 내부의 녹색시설을 확충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交通管理室에서는 交通管理室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CCTV 고속도로 정보망, 국도 정보망도 이렇게 확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李始英 委員님도 이룰테면 다른 타 방송사의 교통정보에 대해서 방송횟수 또는 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국도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룰테면 방송을 지금 本部長께서 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는 고속도로정보도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오늘 프로그램 개편해서 나왔는데 녹화방송인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 많이 있습니다만 녹화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상황이 막혔을 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방송을 하다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우선적으

로 수시로 낼 수 있는 편성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경애의 음악산책이 새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교통방송이 만약에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하는 순간에 9시 50분 이후에는 교통정보를 방송을 합시다만 음악산책을 하는 중에서도 음악산책도 중요하지만 교통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를 많이 하면서 음악을 듣는, 주가 교통정보가 되고 보조가 음악산책이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이따 오후에 답변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방금 朴謙洙 委員께서 보도방향이라고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를 거기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交通放送本部의 취재기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족하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상황과 관련해서 각 곳에 취재원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또는 상주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交通放送局에 앉아서 각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말하자면 영상제보라든가, 또는 교통통신원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해서 정해서 보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실체는 말하자면 지금 얘기했듯이 市議會가 열렸을 때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委員會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면서 취재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취재기자의 수가 적정하지가 않은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취재기자의 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전 동안 委員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交通放送本部長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자리에 계신 委員님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할 때까지도 자리에 안 계신 委員님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먼저, 金亨吉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趙淳 市長의 시정설명 녹음이 방송되고 있는데 청취율을 조사해 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교통방송의 전반적인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委員님께 제출한 요구자료 49페이지에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청취율은 월 1회 방송되는 관계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운전자가 18% 비율인데 6.5%정도밖에, 청취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방송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는 사람의 반응은 운전자

의 49.3%가, 비운전자의 69.2%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는 얻고 있습니다만 청취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마 월 1회 나가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 문제는 市 公報室하고 연대해서 시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 번 합동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3년 전에는 청취율 조사를 市 公報室에서 했습니다.

○金亨吉 委員; 아니, 그런데 청취율에 대한 비중은 1안이지만 실제로 趙淳 市長이 우리 시정한 것에 대해서 효과반응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交通放送本部를 주관으로 公報室하고 연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좋은 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室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래서 과연 시정에 대한 내용이 천백만 시민한테 전파가 확실히 되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7시에 하고 또 오후에 계속 방송을 하니까 방송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영어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천백만 시민한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公報室하고 협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자세히 재분석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협찬에 66억 4,0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질문이셨는데 저희가 현재 66억 4,000만 원을 올해 협찬수입 목표로 해놨는데 97년 3월 20일 며칠전 현재 목표액의 82.6%에 해당하는 54억 8,300만원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방송은 대부분이 연초에 계약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보면 현재 각 협찬사의 광고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 목표달성이 11억원밖에 안 남았지만 상당히 그것이 목표액을 간신히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작년에는 20 몇% 추가달성했습니다만 추가달성하기에는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本部長님, 경영학 측면에서 위기가 호기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라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약 11억원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는 호기로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66억 원을 해내려는 의지를 물어보려는 것이지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니까 좌우지간 세입에서 66억 4,000만원은 97년도 예산에서 해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현재 곤두박질하고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문제 여러가지 해서 과연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나오겠느냐, 광고문제 협찬에서.

왜냐 하면 서로 주머니를 짜고 살림살이를 움츠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인데, 단 살림살이를

어떻게든지 66억원에서 기필코 해내겠다는 그 의지를 내가 확실히 묻고 싶은데 本部長의 의지만 얘기하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같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업무과하고 계속 협찬사하고 절충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本部長도 뛰어야죠.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本部長도 뛰겠다 이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도 뛰어서 목표달성에 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해내겠다 하는, 여기간부들 다 얘기 들었죠? 위기가 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학 측면에서는 다이나믹한 경영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갖습니다. 이럴 때에 호기를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간부들이 다 뛰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재수정이 안 되도록. 66억원 이상으로 받아오면 대단한 성과죠. 위기를 호기로 이용한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디지털장비 등 올 예산에 대한 구매방식은 자체발주하면 어떤 업체로 해서 SOROK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자동 송출장치 APS는 이미 調達廳에 발주해서 3월 28일 입찰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믹서기와 중계송신기는 아직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중계송신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쯤 설치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송신기는 다른 장비와 설치가 5월, 6월까지

남산 이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기지하고 우리 설치예정장소가 이동통신기지하고 제일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동통신하고 근본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장소를 해서 기술 국장하고 담당차장이 현장답사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끝난 바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런데 디지털 3억 8,000만원하고 중계송신기 3억원, 이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예가하고 실제적으로 납품가격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가를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디지털 3억 8,000만원하고 중계송신기는 8월에 한다고 그랬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金亨吉 委員; 남산으로 이전하는데 지장은 없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金亨吉 委員; 다음에 자동송출기가 1억 7,300인데 SOROK에 의뢰한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습니다.

○金亨吉 委員; 調達廳에?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金亨吉 委員; 調達廳은 SOROK라고 하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입찰예정입니다.

○金亨吉 委員; 의뢰를 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런데 예가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여러 군데서 市가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해서 최소한도 3개사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균단가와 공정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에서 예가를 여러 기관에서 한 것을 분석을 해서.....

○金亨吉 委員; 어느 기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러니까 자동송출 장치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金亨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동종업체에서 견적을 세 업체에서 받아서 다음에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기술국 기술조정부에서 전부 예가 조사를 해서 그 예가가 시가에 제대로 맞는가, 적정가격인가, 또 調達廳 예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가를 만들어서 調達廳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런데 현실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견적을 받을 때 우리가 예가를 책정해서 견적을 받는다 하는 것하고 放送本部에서 실제적으로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견적을 받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실무경험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 放送本部에서 직접 구매를 하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도 받고 금성사도 받고 또 다른 분야에서 받는다 하고 1차 네고, 2차 네고 들어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같은 시설에 같은 조건에. 그렇죠? 바로 그것이 예가가 돼야 될텐데 지금 내가 보는 시각은 放送本部가 예가를 결정하기 위한 오퍼를 받게 되면 실제적인 예정가격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냥 일반적으로 사겠다고 했을 때

는 높아지지만 이 예가를 저희가 받을 때 재료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출기초 조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 자체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金亨吉 委員; 아니, 견적을 받는다고 하니까 얘기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다음에 調達廳으로 해도 거기서 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金亨吉 委員; 물론이죠. 그러나 주체측은 放送本部라고요. 그래서 3개회사의 견적을 오퍼를 받아서 거기에서 1차 네고, 2차 네고, 개별 네고를 들어가게 되면 100원짜리가 똑같은 자료를 투입해서, 다음에 똑같은 규격으로 생산했는데 100원 짜리가 7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放送本部 앞으로 예가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調達廳에 제시하는데 생산 적으로 경영마인드쪽에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익을 제시 하고 싶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희들이 늘 당면한 문제입니다.

○金亨吉 委員; 지금 예가 결정하는 것이 그냥 견적받아서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져버려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일반적으로 가격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든지 그 가격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비 싸게 팔려고 하는 노력과 또 싸게 사려고 하는 노력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격단가를 받았다 해서 그것이 일반시세와 터무니없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늘 상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가격 중에서 放送局으로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그 예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亨吉 委員; 싸다 이전에 제 규격을 제 품질을 제 값에 사

자는데 뜻이 있다 이것이죠, 지금 얘기는. 우리도 지금 어디서 오며 의뢰가 오면 정상가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메이커에서 이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가격으로 하죠 이렇게 내려간다 얘기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라인이 예가가 돼야만이 실제적으로 계약단가하고 큰 갭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안 그러고 큰 차이가 나게 되면 벌써 의혹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의심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예가가 이것이다 그러면 업자는 전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아, 예가가 100원짜리니까 얼마 88%놓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찰계약금액은 높아져간다는 얘가지요. 저는 지금국고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이상 金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金亨吉 委員; 그리고 이것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보세요.

프로그램개편 세부내용에 토·일요일 현재는 TBS대행진 1, 2, 3부로 방송하고 있는데 개편프로그램에는 토·일요일대행진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토·일요일을 딱딱하게 그런 표현보다도 좋은 주말 대행진 이런 표현을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제안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토·일요일하면 좀 딱딱한 맛이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TBS대행진 1, 2, 3부를 토·일요일대행진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토요일대행진, 일요일대행진.

○金亨吉 委員; 그렇지요. 좋은 주말 대행진한다든가 표현을

부드럽게 바꾸는 방법도 안 나오겠나,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은 편성부에서 검토를 할.....

○金亨吉 委員;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李始英 委員; 3페이지 프로그램개편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 담당PD 그리고 진행자들하고 1일 얼마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 있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것하고 이번에 개편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李始英 委員; 바뀌었는데 그 주요경력하고 연락처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다음 李智文 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행태조사에 대해서 94년 이후 청취조사한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智文 委員; 언제 주실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내일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智文 委員; 94년 이후에 청취여론조사라는 것이 불과 1년에 한두 차례인데 해 봤자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온다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 계약서하고 청취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같이 해서.....

○李智文 委員; 보고서는 필요 없고요. 94년 이후에 여론조사 계약방법, 계약회사, 계약금액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교통방송프로그램 반영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 중의 하나인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와 함께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4일 교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동 만남의 광장에서 공개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교통시대 프로그램 김종찬씨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발서울대행진 3부와 4부 프로그램인 배한성·송도순 프로그램에서 교통장애인먼저실천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을 지금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취행태조사와 ARS감리를 수의계약했는데 월드리서치 대표가 언제부터 시청자위원이 되었으며, 수의계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준 자료 51페이지에 죽 있습니다.

○李智文 委員;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분이 94년 9월 26일부터 위원으로 하면서 작년 2월 28일부터는 부위원장이 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월드리서치가 최근에 두 번에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청취율 조사에 따른 산출기준 조사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이미 여론조사를 해 봤던 갤럽하고 미디어리서치 이런 데다 가격산정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아본 것이 미디어리서치가 1,971만원이 나왔고, 코리아리서치가 1,672만원이 나왔고, 월드리서치가 1,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96년도 일체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智文 委員;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격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경쟁입찰 부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경쟁입찰이 지난번에 94년도에 저희가 경쟁입찰을 부쳐보았는데 그때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1등, 2등, 3등이 10여만원씩밖에 나오지 않았습다. 그래서 꼭 이것이 제비뽑기하는 정도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세 회사의 신용도와 실적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전부 가격조사를 해서 이 중에서 월드리서치가 제일 낮겠다 생각해서 월드리서치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智文 委員; 내일 자료주실 때 덧붙여서 월드리서치회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의 작년도 주요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池昌洙委員님 방송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리스트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性龍 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委員님께서서는 남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에도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가 하는 우선 첫번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TO로 정규직원은 현원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청사가 조금 커지고 하기 때문에 경비에 있어서 청경이 일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위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근무자를 한 4·5명 아무 데서나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방위근무자 추가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경과 외곽경비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청소는 세 사람의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데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 사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소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ARS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산요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방송고유업무하고는 별도지만 이것이 전산요원 2명과 ARS 운영요원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가요청을 인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타이틀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MC 등 내용면에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현재 우선 타

이틀 변경된 프로그램이 모두 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자가 12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외부 MC 24명 가운데 MC들이 절반이 교체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에 관한 것, 교통기본질서에 관한 것, 이러한 교통정책에 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교통문제 심층적으로 파고들었고, 또 신선한 면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李始英 委員; 어떤 내용이 강화되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특히 교통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김종찬씨를 배치해서 한국의 교통문제 전반을 심도있게 더 분석하고 취재를 하고 정책문제를 진단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휴일 특수한 주말이면 지금 현재 2시부터 6시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되면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토 주변이 아주 갈수록 혼잡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곽에 나간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오락프로를 조금 약화시키고 토요일대행진 해서 아까 金亨吉 委員께서 명칭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프로인데 그 프로에 교통정보를 집중 제공하고자 그 프로를 대폭 6시간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율 하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비운전자 애청자 증가대책을 아까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 청취율이 61%에서 59.8%, 지금 1.2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조사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하여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안에서 여러 번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방송이 주 청취대상을 운전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또 비운전자인 경우에는 교통정보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취율에서 KBS나 MBC에 비해서 저희가 청취율이 낮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집에서는 텔레비전 보고 차를 타고 나오면 교통방송을 듣는다는 일반 추세에 비추어서 그런데 최근에 KBS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고, KBS에서도 MBC와 똑같은 현상으로 왜 교통방송에 비해서 청취율이 적으냐 하는 간부들에 대한 호된 질책이 몇 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교통방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고, MBC에서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SBS FM이 새로 개국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통정보를 그렇게 여러 放送局에서같이 제공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 交通放送局이 청취율이 떨어졌다, 안떨어졌다 하는 차원보다도 교통정보를 사망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청취율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가도록 편성내용을 계속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지금 그 얘기는 타 방송국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TBS의 어떤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대응책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이전에 시민들한테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대응책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초점 같은데 그런 답을 내 주셔야지.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래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그렇게 MC를 절반 이상 바꾸고 교통프로그램을 강화시킨 것이 대응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1월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나온 것이 이번 3월 개편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0일 이후에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MC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보통 보름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방송 호흡을 맞추는데 PD나 여러 가지의 호흡관계가 있어서 이제부터 호흡을 조금 조정할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洪性龍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간 비운전자들 위해서 재미가 있다든지 특별한 프로가 있다고 그러면 비운전자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뒀서 프로를 비운전자들도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런 프로로 보강을 해서 비운전자들도 듣게 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池昌洙委員님이 요구하신 장비구입과 관련된 자료제출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允中 委員님과 趙上男 委員님, 金永春 委員長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도부분을 강화하고 趙委員님께서서는 기자 6명을 증원을 해서 보도국을 대폭 강화하라고, 또 金永春 委員長님도 취재기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취재기자가 현재 9명으로서 전체로 봐서는 방송국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봐서는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보처로부터 방송허가를 받을 때 보도부분에서 정치문제를 빼고 기상하고 교통정보 중심으로 해달라는 특별주문이 있긴 있었습시다만 저희가 시사뉴스에서 정치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아도 일반생활뉴스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님께서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각 위원회, 서울시의회 위원회에도 기자들을 파견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는데 보도기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취재장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녹음기를 36대를 구입해서 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도록 하긴 했습시다만 보도기자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보도국 기자들 입장에서는 방송국의 기자다운 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 보도기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도 일반방송을 했을 때 KBS 기자실과 일반방송국으로 했을 때 MBC 기자실과 그 엄청난 인원을 이것이 같이 경쟁이 되겠느냐? 오히려 교통방송의 특성을 해서 교통정보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식의 논의가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도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는 회사 전체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市政開發擔當官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증원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입장일단이 있어서 市政開發擔當官室하고 쉽게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증원을 해서 일반 정치문제는 보도하지 않더라도 취재영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李允中 委員님께서 서울市長의 출연자료, 이 요구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RS 예산중에서 실제로 11억 4,000만원이 낙찰중부실공사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나, 저가입찰에 대한 얘기하고. 왜 삼보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기술규격심사와 더불어서 調達廳으로 넘겼는데 5개 업체 중에서 삼보가 최하입찰자로서 낙찰을 했고 여기 저가낙찰에 대해서 부실우려가 있다는 것은 반년 전에도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점 낙점자인 현대선진테크를 감리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테크는 SI에 대한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감리를 선진으로 했고, 부실의 경우는 감리·감독과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실의 경우에는 삼보 자체가 관보에 게재되고 관청의 입찰자격 참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차점 낙점자인 선진테크와 또 저희 기술진들이 계속해서 감리·감독과 검수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允中 委員;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보정보통신을 입찰하는데 가장 저가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 배경을 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다는 자료가 없습니까? 이 결정을 우리 本部

장이 했습니까, 調達廳에서 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調達廳에서 했습니다.

○李允中 委員; 의뢰는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내용이 부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李允中 委員;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더 합시다. 기자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장비현실화에 대해서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방송 기자들의 얘기가 녹음기 하나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면 보도방송 나오면 직직거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현실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장비가 빨리 개선이 안 됩니까? 아까도 同僚委員이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기자들의 방송장비라는 것이 사실은 녹음기하고 최근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트북까지는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구상을 못했고 녹음기는 지난번에 36대를 사줬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몇 개 이렇게 교대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데 조금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白聖德 委員님 질문으로 별정직 직원의 추천자는 누군가, 인사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공채여부와 전문성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地方公務員任用습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조례에 의거해서 특별전형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5페이지에 별정직 공무원의 명세표가 지금 委員님들 앞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本部長하고 總務局長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고 나머지 별정직 전원은 교통방송 개국시의 공사창설 요원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충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喜甲 委員님께서 방송진행중 지적사항에.....

○委員長 金永春; 本部長, 자리에 안 계시는 委員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 계시는 委員님들을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李允中 委員; 아까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정보부 자리로 옮기는데. 제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

交通放送 신청사가 왜 자꾸 질질 끌고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신청사 이전사항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현재 공정이 75고 5월 13일까지가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李允中 委員; 언제 입주 들어갑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5월 13일 끝나면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열흘 동안 이사를 합니다.

○李允中 委員; 차질 없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차질 없습니다.

다음 李始英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ARS 추진사항에 대한 本部長 의지와 입찰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의 질문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ARS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받주

할 당시부터도 저희가 ARS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네비게이션시스템으로 교통정보요구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통정보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교통방송에서 해야 된다 하고 의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ARS에 대해 추진사항은 ARS가 여태까지 한번도 한국에서 추진된 본 적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ARS가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그러한 ARS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제도를 기아와 59억원에 계약을 맺어져 진행하고 있고, 또 建交部에서는 지금 한국이동통신과 89억원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억 4,000만원에 진행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그 사람들 만든 시스템보다 못한 것이 없이 오히려 더 나으면 나았지 더 못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보면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보화통일유통센터를 만들기로 한 청와대 방침에 따라서 建交部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을 ARS화시키기 위한 교통정보물동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3,50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그 중에서 서울지역에도 약 1,000억원 정도를 배당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큰 물량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로 이것이 부담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최소한도로 만든 것이 11억원이라고 그래서 80억원짜리 만드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올 수 있다고도 자부합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도 그렇고 이동통신에서도 저희한테 기술을 얻으려고 상당히 많이 자문을 구해오고 있고, 또 우리 ARS자문단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 자문들하고 ARS 교통과학자들이 겹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李允中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18억 9,000만원짜리를 11억원에 했을 때 부실공사 우려, 그것은 질적으로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만 저희가 삼보정보통신과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실이 있을 경우 당선하고 우리 교통방송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느냐, 이것은 11억 4,000만원짜리 공사가 아니라 18억 9,000만원짜리 공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을 누차에 강조하고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애초에 다짐이 자기네들 인건비와 일반 마진없이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로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었던 아까 전자감응식 루프코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실현계획이 아니고요. 참고로 하실까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결재한 사항을 거기 참고표로 붙인 사항입니다.

○李始英 委員; 그러면 이 기기선정 같은 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안했습니다.

○李始英 委員;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참여업체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ARS 안을 만들어서 ARS 작업이 진행되고

그것은 전혀......

○李始英 委員; ARS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보고서와 같이 광검지기 설치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런데 광검지기는 지금 저희가 40대를 설치를 해 두자고 하고 있고요, 지금 루프시스템은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기본 안에는 루프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루프시스템 한 3·4,000개 중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道路公社와 이 루프시스템이 서울시 전역에 깔려 있는데 조금만 아스팔트를 그 위에 덮히게 해도 이 기능이 저하되고 해서 서울시 교통관제센터에서도 루프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그 자료를 검증해 보았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차가 달리는데 5km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차가 없는 데도 150km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쪽 交通管理部長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중에 살은 것 만이라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100개나 200개라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도저히 자기네들로서는 루프코일 자체 시스템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료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영상시스템은 전부 다 주되 루프시스템은 줄 수 없다고 시경에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루프시스템이 없을 때 우리가 정보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정보통신원과 지역방송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산과 각종 정보수집방법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삼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보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보강시스템이 저희 교통방송 6층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그것을 시험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물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

○李始英 委員; 잠깐만요, 삼보에서 보강시스템을 한다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향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개요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하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KBS 통신원이 7,000명이다 하는 데 대한 대책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BS, MBC, SBS까지도 상당히 교통보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KBS 7,000명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는 교통통신원이 3,500명 지금 있습니다만 KBS는 제주도, 부산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은 이것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이것이 1,500명은 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습지만 앞으로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로 해석하고 있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완비되었다고는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KBS에서 이만큼 교통상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자극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책을 세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7,000명 통신원이다라고 하더라도 교통에 관한 한은 그래도 교통방송이 단연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부산하고 광주가 교통방송을 당장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하고는 별도로 서울시와 가청거리 안에서는 저희 시스템이 단연 KBS보다도,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지금 현재 앞서 있다고 보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지금 가청률시스템을 볼 때 천안까지, 대전부

터 서울까지 가청권으로 보는데 그러면 KBS는 이미 道路公社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56대 고속도로하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고속도로에 CCTV화면 연계해서 상황을 종합분석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道路公社하고 지금 어떻게 접해 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희는 지금 현재 道路公社에 저희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경과 道路公社에 설치가 되어 갖고 통신원이 상주하고 있고 호법, 신갈에는 30명이 우리 통신원이 배치되어서 국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道路公社에서 들어오는 화면이 아침에 보시면 KBS에서 그 화면을 중계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화면이 지금 저희한테도 연결이 리포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道路公社하고는 계속해서 추석특방 및 전 부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CTV가 KBS하고 연계되어서 아침에 방송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남산에 실제로 설치하면서 129대로 증가해서 서울시경 것은 109대인데 129대로 설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이 지금 거기 16대를 끌고 오는데 한 4개 채널로 해서 올 경우 한 채널당 350만원씩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저희가 道路公社에서 가져올 CCTV화면을 미리 설치하는 대수가 129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9대하고 나머지가 그런 것으로 해서 연결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道路公社 쪽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잠깐만요, 연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道路公社는 이미 KBS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했을 경우는 교통방송국에서는 다시 KBS하고 재계약

을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지 않습니다.

○李始英 委員;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이미 道路公社하고 KBS가 계약을 했는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독점계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李始英 委員; 독점계약이라고 보는데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니요, 지금 MBC도 나오고 있고, SBS도 그 화면을 일부 비쳐주고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지금은 초창기 단계여서 KBS가 화면을 비춰주고 하겠지만 이것이 독점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장을 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道路公社가 KBS를 주계약자로 해서 부계약자를 전부 이렇게 나누어준다고는 저희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道路公社도 정부기관이고 저희 交通放送도 정부기관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리포터실을 만들어서 거기 정보를 전부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李始英 委員; 지금은 KBS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통신원 7,000명을 풀로 가동하고 KBS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을 때는 우리 交通放送局 거기 질질 딸려가잖아요?

딸려갈 때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交通放送本部長이 정보 미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요. 만약에 이 문제거리로 차후에 생기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리고 만약에 本部長은 이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대내외적으로 그만큼 활동을 안했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本部長 얘기 대로 되면 서로 같은 정부투자기관끼리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빠른시간안에 交通放送局을 능가했을 때 그때 대응과 대책은 없잖아요? 아직도 本部長은 交通放送局 청취율도 높고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꿈 속에 헤매고 있다고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KBS에서 나올 때는 그에 대한 대책과 대안 그것이 지금 本部長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道路公社하고 그 여부를 KBS 관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本部長님이 이런 정보를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가, 아니면 그쪽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이런 자료는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감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라든가 내용 가지고 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KBS에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어떻게 들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KBS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KBS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할 때 저희 편성국과 정보실로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KBS

는 우리 交通放送本部를 볼 때는 바위하고 계란싸움이에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交通放送局에 있는 정보는 이미 그들이 이것보다 더 위에 앉아 있어요. 마치 자문을 구한다고 하니까 교통방송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本委員이 이것을 조사해 볼 때는 막대한 전국권을 가지고 있는 KBS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데고, 또 KBS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교통방송본부 보다는 훨씬 큼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交通放送局이 하는 독단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KBS나 MBC, SBS 이런 데서는 여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후 21세기는 가장 중점적인 키포인트가 무엇이나, 교통하고 환경입니다. 그러면 교통방송국은 영역권을 벌써 많이 침범을 했어요. 그 예로 바로 道路公社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교통방송국은 가청권이 말 그대로 대전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고속도로와 국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민한테 전해 주지 않을 때는 과연 交通放送局의 청취율이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交通放送本部長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만큼은 분명히 물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 것은 대외적인 활동이 미약했다, 정보미비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미 다 계약을 하고 다 체결되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계약을 했지만 어떠한 계약건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제동을 겁니다. 무엇인데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미 전국에 56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500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交通放送本部의 정보부재에서 오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지금 현재 KBS에서 활동과 내역과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하였는지 그 내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朴謙洙 委員 보충질의하세요.

○朴謙洙 委員; 보충으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本部長께서 혹시 李始英 委員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道路公社측과 우리 교통방송과 계약을 하자고 추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道路公社하고는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아니, 업무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交通放送本부와 우리가 어차피 고속도로 교통을 들어야 하니까 지금 아침에도 우리 本部長님 보고에도 국도상황까지 이제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고속도로가 출퇴근용 도로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KBS 같은 경우 李始英 委員님도 56개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는 직접 계약을 해서 모니터와 이르면 CCTV를 동시에 봐가면서 생중계할 수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모니터만 보고 신갈지점이 어떻다, 천안지점이 어떻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교통방송 본래의 입장을 다하기 위해서 道路公社側과 계약을 혹시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로 계약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지금 필요성이 없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ARS 시스템에 대해서.....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지금 여기 KBS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망 하는 것은 서울시내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교통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ARS가 고속도로까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서울시내 교통을 알아보는 것이지. 그러면 KBS에서도 굳이 本部長님 말씀을 들어보면 리포터 파견해서 道路公社에서 그것을 보고 중계하면 되지 굳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또 다른.....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제 생각으로는 왜 계약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KBS는 공사체로서 道路公社하고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하고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ARS번호를 우리가 지금120, 114, 119니 그런 번호와 마찬가지로 지금 情報通信部하고 협조해서 131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교섭을 거의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131의 1번은 저희가 되고 2번이 도로교통안전협회, 3번이 道路公社가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정보라는 것이 거기 자동적으로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道路公社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계약이전에 업무가 전반적으로 끈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안하던 것을 하니까 계약을 하고 들어갔고 저희는 오래 전부터 道路公社하고 업무협조를 맺고 있습니다. 저

희가 사람을 파견하고 있고 또 저희 간부들이 수시로 그쪽에 들러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더군다나 ARS에서 현재 분할방식이 133의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33번호가 1번이 서울지역, 다음에 2번, 3번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것, 다음에 4번, 5번은 부산과 광주, 다음에 고속도로에 관한 것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연결관계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전에 고속도로정보는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133이라든지 120이라든지 이런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여태까지 하던 것을 새삼스럽게 계약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서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필요를 아직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朴謙洙 委員;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까? 계약할 필요없이 쉽게 얘기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는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道路公社에서 자기들이 돈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줍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道路公社에서는 서울시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그것이 133이라는 같은 번호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스템이 交通放送은 서울시 기구고 道路公社는 저쪽이기 때문에.....

○朴謙洙 委員; 그것은 우리 교통방송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

라 경찰정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CCTV로 들어오는 화상정보가 사실은 경찰정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나 朴謙洙 委員님이나 우리 委員長이 交通委員會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이제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같은 경우는 방송채널 중에서 특별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KBS도 전문성을 띠고 그 채널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本部長님,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서울시가 독점을 가지고 있다고 本部長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교통안전센터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무한히 교통방송을 견제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선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道路公社에 있는 56개 CCTV나 道路公社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이것을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交通放送局은 언제까지 통신원 몇 명 가지고, ARS사업도 아직까지 검증도 받지 않고, 지금은 本部長님께서 ARS도 대단히 의욕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적으로 깊게 보게 되면 정말 본위원은 이 예산을 세웠지만 심히 두렵습니다.

本部長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걱려를 하고 더 잘해줘야 된다고는 알지만 바로 큰 마인드를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委員님이 걱정해 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언제까지 세울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런데 이것을 하나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ARS를 처음에 저희가 하자고 예산과에다 제출했을 때 네비게이션시스템이 이것을 뺏겨가지고는 서울시警이나 道路公社나 이런 데 선취특권을 뺏길 우려가 있으니 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우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맨 나중에 안 돼서 豫算課에서 깎여서 없어졌다가 그것을 나중에 인식을 해서 새삼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욕도 委員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李始英 委員; 이미 ARS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받지 않아서 중점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ARS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시민이나 議會나 검증받을 그런 단계가 와야만이 98년도 예산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킬 것인데 그 반영시키기 이전에 의문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로서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드는 ARS가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그러시면 이것을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KBS나 MBC, 또는 SBS를 교통방송이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월드리서치 같은 기관 말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에 아직은 KBS가 교통방송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인식 자체가 그

렇게 안돼 있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KBS도 경찰정보 받고 또 道路公社 정보 받고 자체 리포터들 활용하고 모니터들을 활용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서도 어차피 광고수입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쪽 광고수입을 받게 되면 분산돼서 우리쪽 협찬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예상이 되니만큼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KBS나 KBS교통정보센터, 거기 방송을 하는 입장과 우리 교통방송 또는 다른 방송과 비교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지금 本部長님 입장으로는 정보가 자동으로 주고받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KBS도 협찬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뛰어들지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쪽의 영역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우리쪽이 잠식당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한번 KBS하고 MBC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보도내용만 별도로 해서 발전전망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도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朴謙洙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월드리서치 같은 아까 우리 委員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에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맡기시라고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朴謙洙 委員님 질의한 것 마저 답변이 됐나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고속도로 문제하고 정보입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그것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 朴謙洙 委員님이 질문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교통방송은 교통정보가 우선돼야 되는데 녹음방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하나 말씀하셨고, 청와대 보도가 편중이 된다 하는 말씀이셨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교통방송을 하는데 녹음방송이 많은 이유, 실제로는.....

○朴謙洙 委員; 녹음방송이 많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획방송이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까 다만 좌우지간 1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까 환경애의 음악산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까.....

○朴謙洙 委員;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통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일상적인 교통 외에 입장을 방송프로그램 목적에 따라서 그 분야만 계속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차를 몰고가다 보면 막힌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교통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막힌데 있어도 얘기가 안 나와요. 계속 자기들 그 프로그램 편성목적에 따라서 그 분야만 계속 방송을 하지 예를 들면 서대문을 지나서 김포공항을 간다, 그런데 김포공항을 가는데 차가 막혔다 이말이죠. 막혔으면 그 분야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혔으니까 차가 우회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정보가 나중에 50분에서 시보 올릴 때까지 그런 10분간에만 그 얘기가 나오지 그

나머지는 자동차백과사전, 무슨 사전 그런 것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혹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는데 조금 참고를 할 용의가 없는가?

다음에 우리 交通管理室을 비롯한 산하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을 하고, 다음에 편성자체를 제가 보니까 청와대 뉴스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청와대 편중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도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전부 재검토해서 균형을 맞춰서 편중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朴委員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환경애의 음악산책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우리 編成局長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朴謙洙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직접 들어보는데 뉴스를 아까 우리 本部長님이 관심을 가져본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편파적으로 뉴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쪽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편파적이 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보다도 양해해 주신다면 編成局長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編成局長 얘기 듣기 전에 청와대 뉴스가 편향적으로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통방송의 경우는 시사뉴스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交通委員會에서 그 동안 누차 市議會 활동이라든지 특히 교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왜 안하느냐, 또는 市議員들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그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냐 하는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늘상 시사적인 것은 안 되고, 정치인이 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로 답을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朴謙洙 委員이 청와대 관련뉴스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좀 즉석에서 답이 되면 가능하고 또 안 되면 다음 회의 때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編成局長 나오셔서 보충해서 답을 하십시오.

○編成局長 金成吉; 編成局長 金成吉입니다.

저희 교통방송이 교통특수방송으로서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교통정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교통교양쪽인데 일부는 지금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도 여론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접수되는 과정이 전부다 기계화된 것이 아니고 지역방송실이나 포스트별로 사람이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과정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루종일 21시간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기계화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0분 단위면 10분 단위, 5분 단위면 5분 단위로 정보가 수집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확인합니다.

그 정보가 사실인가, 맞는가 그 검증까지 거치는 과정이 보통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보가 50분 전망대가 우리가 교통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진 이외에는 수시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프로그램편성에 따른 내용을 제외한 교통정보를 위주로 한 수시정보를 10분 내지 15분마다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MC가 하는 경우가 있고, 아나운서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정보가 저희가 50분 전망대를 빼고 5분 뉴스를 빼고 나면 약 40분에서 45분간이 1시간 단위로 계산 했을 때 정상적인 정규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 세 번의 교통정보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세 번의 교통정보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교통정보가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수집되어서 손에 마이크까지 진행자가 방송할 수 있는 선까지 오는 과정이 바로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5분마다 3분마다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체계다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서 저희가 교통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編成局長님께서는 그런 점에 어려운 점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교통정보면에 있어서는 생동감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지나서 막혀서 한참 대책이 없어져버릴 때는 그때는 별로 정보 자체가 이미 죽은 정보나 마찬가지입니다.

○編成局長 金成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이 동감이거든요. 공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현재 교통정보가 5분 전에 저희들한테 전달되었는데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각에도 그런 상황이 똑같은

가 확인해야 됩니다. 5분 전에 저희들한테 전달했지만 5분 후에 그 상황이 변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정보를 주고 있는 시각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면 뉴스에서 청와대 편중보도는 어떻게 됩니까?

○編成局長 金成吉; 청와대 편중보도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가끔 우리가 청와대뉴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報道局長이 부서의 책임자가 있지만 하여튼 일단 제가 編成局長이니까 방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양되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委員長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사뉴스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또 반면에 委員님들께서 보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늘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의견도.....

○朴謙洙 委員; 기자 늘리는 문제하고 청와대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기자들을 늘려서 교통생활정보, 환경 이런 우리 서울시 교통난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심층 취재할 수 있는 길하고 지금 말씀 한 번 드릴까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3월 5일자 같으면 개각이 임박했습니다. 물론 개각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개각이 임박하면 개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뉴스가 나가겠지요. 타 방송사는 그렇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방송사니까 당연히 나가야지만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각단행을 했는데 7시, 9시, 10시, 12시, 17시, 18시, 19시, 22시, 14시, 15시 이것은 예를 들면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똑같은 내용이 하루 종일 틀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編成局長 金成吉;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는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청와대 기사나 우리가.....

○朴謙洙 委員; 아니, 청와대 기사가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기사다 이런 부분 같으면 교통부분이나 시민생활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되지만 이것은 숫제 다 정치뉴스예요.

○編成局長 金成吉;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서 충분히 委員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와대에 편중되는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있는데 이를테면 신한국당 당직개편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갑니다. 권노갑 지도위원 구속적부심에 기각되었다는 내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내용을 보면 교통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編成局長만 얘기를 합니까, 본부장도 얘기를 하십니까?

○編成局長 金成吉; 가끔 말씀하십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는 사실 보고내용을 청와대뉴스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본부장께서 우리 시민생활이나 이렇게 하면 청와대뉴스 아니라 외국뉴스라도 보내야지요. 그런데 서울시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會期때도 우리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교통방송기자가 交通管理室 또는 地下鐵建

設本部 또는 都市鐵道公社의 우리 常任委에 보고한 것 뉴스에 한 번이나 내보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시민입장에서는 교통이 어떻게 도는가 알려면 당연히 交通管理室이나 都市鐵道나 地下鐵公社나 또는 나머지 교통관련 부분들이 당연히 뉴스가 나가야지 그런 부분의 뉴스는 안 나가고 엉뚱한 뉴스만 나가고, 물론 공사화를 지향하고 또 뉴스가 일반시민에게 다 같은 새로운 소식으로 들리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런 분에까지 너무 편중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정치뉴스는 계속 축소해 나가고 交通委員會라든지 서울시의회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청와대뉴스 및 정치뉴스를 공보실에서 지적되었어요?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도 아직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러면 朴謙洙 委員이 얘기한 대로 청와대뉴스나 기타 뉴스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고, 정치성 있는 시의원이나 기타 얘기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공보실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本部長님, 어려울 때는 곤란한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常任委員會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정치적인 뉴스를 하고 났는데도 어떻게 공보처에서 아무 제재나 내용이 없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아마 책임과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지난 議會에서도 약속드린 대로 서울시 뉴스보도가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市議員님들 맨 처음에는 사실 공보처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市議員 출연이라든지, 市議員 이름 거론하는 것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市議員님 이름도 많이 거론이 실지로 되고 뉴스도 많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아까 朴謙洙 委員님 말씀 대로 청와대뉴스가 개각이니 이런 것이 나갔다는 것이 사실 저도 朴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청와대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갈 리가 없는데 하고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전부 원칙적으로 방송뉴스 편성한 것을 다시 재고려해서 서울시議會라든지 서울시민하고 직접 관계된 생활뉴스쪽으로 정치뉴스는 빼고 그렇게 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정치적으로 뉴스를 한 것 1월부터 지금까지 녹취할 수 있지요? 보관해 있지요? 뉴스원고자료를 지금 交通放送局에서 해야 할 내용 외에 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委員長 金永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제재를 중앙정부, 특히 공보처 이쪽에서 그 동안에는 많이 제재를 했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조금 느슨해졌다고 보는데 어떻든 앞으로 우리 交通放送本部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公社化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지

양요소를 많이 탈피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가는 과정중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 서울시민의 방송입니다, 교통방송이. 시민에게 특히 주된 것은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만 이 교통방송이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생활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그러한 방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교통에 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市長께서 나오셔서 매주 일정한 시간에 방송이 나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議會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살아있는 뉴스로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해서 나간다면 훨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交通委員會만 하더라도 交通管理室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와서 취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나가면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뉴스가 됩니다. 그것은 시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 또는 地下鐵公社 우리 交通放送本部, 市議會에 나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취재가 되어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더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또 시민생활정보 그러면 他 委員會 生活環境이라든가 또는 文化教育委員會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취재하다 보면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아까도 너무 수다가 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시다만 그렇게 수다하는 시간에 그러한 정보들도 스포트로 나가 주면 시민들이 상당히 새롭

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朴謙洙 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本部長께서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처음 들었다, 여기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交通放送本部の 누가 오너입니까? 本部長이 오너지요. 오너가 방송이 어떻게 뉴스 나가고 어떻게 프로그램 짜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것이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교통방송을 듣지 말라고 해도 듣습니다, 방송자체가. 다른 방송 다 뉴스보고 신문보고 그렇고 교통방송은 교통을 듣기 위해서 교통방송을 틀게 됩니다.

좀 각성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交通放送本部 소관 당면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서면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시지 않아서 답변을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委員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특별히 委員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本部長께서 간부회의를 다시 열어서라도 오늘 常任委員會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토의를 하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교통방송이 훨씬 더 나아진 기관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2分 散會)

○出席委員

金永春 朴謙洙 李智文 金在仁

金亨吉 金喜甲 白聖德 梁敬淑

李始英 李允中 鄭炳仁 趙上男

洪性龍 池昌洙 李聲九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交通放送本部

本部長 崔仁煥

編成局長 金成吉